

[별첨]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

◆ 2020년 중 「**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프로젝트**」 추진

- ① 4차 산업혁명,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**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** [☞과제①]
- ② **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테스트** 지원 및 혁신금융서비스의 **국내외 비대면 네트워크** 구축 등 제도의 **글로벌화** 추진 [☞과제②③]
- ③ 지난 1년간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**제반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**하며 제도의 완성도 제고 [☞과제④⑤⑥]

1 목은과제 ·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“**샌드박스 심사 고도화**”

- 샌드박스 논의 과제를 “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비스 중심 → 금융위 자체적인 빅이슈 발굴*”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

* [‘19.1. VIP 말씀(페이스북)] “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함께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합니다.”

☞ “**목은 갈등과제 및 핵심 혁신과제**” 샌드박스 논의방안(안)

- **[개요]** 분야별 샌드박스 심사시 자체 발굴과제를 1개이상 포함하여 운영*
* (예) 목은 과제(망분리 완화 등), 혁신 과제(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, 신보 팩토링 업무 등)
- **[향후일정]** 6월(자본시장) 9월(전자금융·데이터) 11월(은행·보험·여신전문)

- AI, 디지털 인증,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**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TF***를 분기별로 운영

* TF 운영(안) : (2분기)인공지능 → (3분기)인증·본인확인 → (4분기)블록체인

☞ **금융권 인공지능(AI) 활성화 워킹그룹(안)**

- **[개요]** 금융권 특성에 맞는 **AI 가이드라인, 보안 체계 구축** 등 검토를 위해 **금융권 AI 워킹그룹** 구성 → 우선 추진과제는 **규제 샌드박스**를 통해 테스트
- **[향후일정]**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**금융권 AI 활성화 방안** 마련(2분기~)

2 핀테크기업의 “글로벌 경쟁력 제고” 를 위한 선제적 대응

- 국내 핀테크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*을 벤치마킹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
 - * 「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」(19.10.~)를 통해 4개 분야 글로벌 유니콘 모델(지급결제/자산관리/인슈어테크/대출·데이터)의 국내 도입방안 검토중
-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핀테크 동향을 공유

☞ “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설명회” 운영방안

- [개요] 은행·증권·보험·카드·데이터·전자금융 등 분야별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- [향후일정] 연구용역(5~8월) 결과를 바탕으로 10월, 12월 진행

3 혁신금융사업자를 위한 “국내외 비즈니스 교류의 장” 마련

- “샌드박스 전용 국문·영문 홈페이지”를 개설하여,
 - 혁신금융서비스 대내외 홍보*를 통해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투자 유치 제고
 - * 홈페이지 홍보방안 :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보유 국내외 메일링 리스트(해외 200여개 기관) 활용, 유관기관 및 혁신금융사업자 웹(앱)을 통한 사이트 연계 등
 - 샌드박스 제도안내, 혁신서비스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

☞ “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” 구축방안

- [개요] 샌드박스 제도 안내, 신청, 비즈니스 협력 등의 채널 일원화를 위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개설
 - 이외에 소비자 후기 이벤트, 홍보 영상 제작·게재, 샌드박스 Q&A 등 운영
- [향후일정] 5월 중 홈페이지 구축 완료 → 6월중 홈페이지 정식 오픈

4 “동태적 규제혁신” 을 통해 샌드박스 효과를 극대화

-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, 샌드박스 연계 규제전체의 정비계획 및 현황*을 주기적으로 관리
 - * 6월 중 샌드박스 연계 규제 정비계획 수립·발표 → 분기별 이행현황 점검·관리
- 필요시 샌드박스가 지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샌드박스 해커톤*을 개최하여 샌드박스 연계 규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합의·도출

☞ “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커톤” 운영방안

- [참석] 규제소관 부서, 핀테크기업, 금융회사, 혁신위원, 학계·법조계 등
- [논의주제] 샌드박스과 연계된 과제*를 회차별로 2~3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여부 및 일정 논의(필요시 업계요청 과제도 포함)

* (기준) (i) 동일 규제에 대해 복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경우,
(ii)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
5 부가조건 변경 활성화 등 “탄력적인 테스트 환경” 조성

- 혁신금융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가조건 재설정*을 검토하여 사업자의 원활한 테스트 지원
 - * 현재까지 부가조건 변경 신청건은 5건이며 5건 모두에 대해 변경심사 완료 (서비스 제공범위 확대, 재무 요건 충족기한 연장 등)
- 서비스 테스트기간 종료시까지 특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「금융혁신법」상 근거 마련

☞ “스몰라이선스” 추진방안

- [개요] (i)금융업 인허가단위를 영업대상·방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입요건 완화, (ii)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
* '19.12. 「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」을 통해 기 발표

- [향후일정] 금융혁신법 개정안 마련(상반기) 및 국회 제출(하반기)

6 핀테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“현장 밀착형 컨설팅 확대”

- 찾아가는 샌드박스 확대, 민간 컨설팅 기구*(대한상의) 활용 등 샌드박스 창구를 다양화하여 핀테크기업의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* 대한상의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(2월~5월) → 5.12일 정식 출범

☞ “찾아가는 샌드박스” 운영방안

- [개요·실적] 금융위·금감원·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핀테크랩 등을 방문하여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기타 건의사항을 청취
 - '19년10월 이후 8개 핀테크랩 설명회 및 의견수렴 완료(격주)
 - * IBK / KB / 우리 / 신한 / NH / 하나 / 한화 / DGB
- [향후일정] 1차 찾아가는 샌드박스 완료 이후 희망하는 핀테크랩을 대상으로 2차 찾아가는 샌드박스 진행

- 기술의 안전한 사업화, 신속한 시장출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출원, 보안, 서비스 출시 등 분야의 샌드박스 자문단 구성

☞ “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단” 운영방안

- [컨설팅 범위] 기존 사전 컨설팅(신청서 작성) 기능 외에 특허, 서비스 출시, 보안 등 사후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
- [컨설팅 방식]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직접 컨설팅에서 신청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
 - 7월중 보안, 데이터, 법률, 특허 전문가,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“샌드박스 자문단”을 조직하여 해당분야 컨설팅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과 연계